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 성향이 부모·자녀관계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태준(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오민아(성신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요약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가족관계 및 유대감이 요구됨에 따라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 성향이 부모·자녀관계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김태준 외(2007)가 60세에서 75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교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주도학습 성향과 부모·자녀관계 및 정신건강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60-70대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 성향과 부모·자녀관계는 정신건강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부모·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기주도학습 성향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노년층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 성향을 개발하여 건강한 노화(well-aging)를 도모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고령화, 자기주도학습 성향, 부모·자녀관계, 정신건강, 건강한 노화

I. 서론

한국의 2014년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1998년 합계 출산율이 1.45명을 기록한 이후, 16년째 1.5명 이하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다(KOSIS, 2014).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기존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하였고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18년에는

[†] 주저자: 김태준(0676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1길 35, tjkim@kedi.re.kr)

[‡] 교신저자: 오민아(02844,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2, minahs918@gmail.com)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¹⁾(통계청, 2009).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의 노년층에 접어드는 2020년 이후에는 이전 세대의 경제활동과 소비를 다음 세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구절벽에 접어들어 경제적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Dent, 2014). 이러한 가운데 점차 경제력을 갖추고 학력이 높은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신영희·이혜정(2009)은 성공적인 노화 정도를 점수로 측정하였는데, 점수가 가장 낮은 노년층 집단은 우울 정도가 높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제시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성공적 노년기 삶의 필요조건임을 밝혔다.

실제로 노년층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상 진료비는 2003년의 21.3%에서 매해마다 증가하여 2014년에는 전체 35.5%를 차지하였고, 정기 건강검진을 실천한다는 비율도 2008년의 59.8%에서 2014년의 76.4%로 증가하여 노년층의 건강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5). 이와 관련하여 신용주(2013)는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을 통하여 자기 관리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두(2015)도 자기건강관리를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노년층의 높은 만족도를 제시하며 노년층이 자발적으로 건강관리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노화에 따른 신체적 쇠퇴는 노년층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지만 정신건강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수준이 존재하며 이는 곧 양질의 삶과 신체건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노년층의 정신건강에 주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노년층의 정신건강은 그들의 가족관계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사회적 지지자로서 가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진다(권중돈, 2009). 특히 부모·자녀관계는 효(孝) 사상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권에 있는 우리나라 노년층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윤현숙·유희정(2006)은 가족관계에서 노년층의 성인 자녀와의 접촉이 성공적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하지만 100세 시대의 등장과 함께 이미 우리 사회의 노년층이 부모가 자식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틀에서 벗어남에 따라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부모·자녀와의 접촉의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에 의하면 과거 노년층은 성인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에서 삶의 만족을 느꼈으나 현재의 노년층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도움을 줌

1)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7%~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20%미만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이면 초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한다.

로써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평생학습 관점에서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한 자기관리, 직업역량, 사회참여 등을 고무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노년층 대상의 교육은 평생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급속한 인구구조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신정례, 곽종형, 2014) 결국 한 사회의 진보(social progress)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 사회적 진보(education and social progress)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OECD(2007)에서 건강(health)과 시민참여(civic engagement)에 관한 평생학습의 사회적 성과(Social Outcomes of Learning: 이하 SOL)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OECD는 SOL 연구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럽 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자료 분석을 통하여 평생학습이 사회참여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는 평생학습이 생의 의미, 사회심리적 안녕감(정미경, 2009), 사회적 자본(김태준, 2006; 2010)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평생학습 참여는 생활만족이나 행복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창환 외, 2007; 변중임, 김인숙, 2011; 최돈민, 2013).

이제 100세 시대에서 노년기는 그동안의 삶의 과정을 통합하고 마무리하는 전통적인 관점을 넘어서 새롭게 사회에 적응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하는 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노년층의 삶의 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과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면밀히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노년기의 건강한 삶에 있어서 자기주도학습의 중요성(Candy, 1991; Fisher, 1988; Hiemstra, 1975; Jarvis, 2001)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신용주, 2013).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노년층 대상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건강, 심리적 안녕감 등에 대한 일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기영화, 2005; 신정례, 곽종형, 2014). 최근에는 노인의 자기주도학습과 건강에 대한 이론적 연구도 이루어졌으나, 실증적인 연구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노년층의 노인교육 실태조사(김태준 외, 2007)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60-70대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 성향과 부모·자녀관계 및 정신건강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과 정신건강

최근 OECD는 교육과 사회적 진보(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이하 ESP)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인지적이거나 비인지적인 역량들이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교육을 통해 어떻게 육성되고 사회적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OECD, 2010). 사회적 진보의 영역으로서 OECD가 제시한 것은 환경, 공공안전, 가족 응집력, 주관적 행복감, 건강, 사회적 참여, 그리고 신뢰와 관용으로, ESP의 틀 안에서 노년층의 평생학습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진보를 앞당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Cote & Schwartz(2002)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개인의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함께 통합되어야 함을 경험적으로 증명했다. 특히 그는 정체성 자본의 관점에서, 개인의 자기주도성과 자아효능감과 같은 무형의 정체성 자본이 환경의 변화와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재화와 같은 유형의 자본을 획득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개인의 성향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요 기제임을 밝혔다. 김보은(2016) 외는 국내 성인기와 노년기 기혼 남성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하여 느끼는 어려움이 자아존중감이라는 개인적 성향을 매개로 하여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특히 노년기 기혼 남성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어려움과 우울감을 완전 매개함으로써 노년층의 개인 성향이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매우 주요한 기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개인 성향의 요인으로서 자기주도학습과 건강의 관계를 면밀히 고려해볼 수 있다. 일찍이 자기주도학습은 Knowles(1975)가 그 개념을 체험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성인교육에 도입한 이래로 최근에는 학습자의 흥미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지식’의 구성을 위한 중요한 학습기제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배영주, 2003 p29; 김태준, 2006 p80 재구성).

한편 신용주(2013)는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음을 지적하며, 국외 연구 사례에 비추어 자기주도학습을 노인교육에 접목시켜 노년층이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탐색했다. 예컨대, Jarvis(2001)는 노년층은 배움에 대한 큰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노년층 개개인이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각 개인의 고유한 학습요구를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Fisher(1988)는 노인에게 있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중요하며 자기주도학습은 노인에게 삶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신용주, 2013, 재인용).

신용주(2013)는 자기주도학습이 효과적인 노년기 적응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 모형으로 개인적 책임지향(Personal Responsibility Orientation, 이하 PRO)모형을 제시하였다. PRO모형은 Brockett & Hiemstra(1991)가 자아실현과 개인적 책임감에 터하여 개발한 모형으로 지금까지 소극적 학습자로 인식된 노년층의 학습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감을 강조한다(신용주, 2013).

김태준(2006, 2010)은 성인의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 유형과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개인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정체성 자본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학습이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함을 밝혔다. 이는 자기주도학습이 개인의 건강한 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며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Brockett(1985), Fisher(1988), Candy(1991)에 의하면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준비도가 생활만족도, 삶의 적응 및 건강관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Roberson(2003; 2005)은 노년층의 늘어난 여가 시간, 가족 관계의 변화, 사회적·신체적 상실과 같은 삶의 변화와 타협하는 방법으로서 자기주도학습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기주도학습이 노년층이 직면한 삶의 새로운 국면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나아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케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2. 노년층의 부모·자녀관계와 정신건강

2015년 국내 고령자 가구²⁾는 전체 가구의 20.6%를 차지하며, 고령자 부부가구는 6.8%,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7.4%에 달한다(통계청, 2015). 즉 성인기 자녀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노년층 독립 가구가 전체 가구의 14.0%임을 의미하며, 이는 2000년 7.6%에 비하여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과거에 절대적으로 성인기 자녀들에게 의존하였던 노년층의 가족 관계에 질적 변화가 수반되며 이에 대한 노년층의 건강한 적응과 대처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은퇴와 신체의 노화, 자녀의 독립 및 배우자 사망 등과 같이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의 장면에서 노년층의 가장 밀접한 사회적 관계망인 가족관계는 노년층의 정신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문아람, 2007; 박미숙, 2010; 윤현숙·유희정, 2006; 최혜경·백지은·서선영, 2005).

이영경과 정명희(2013)에 따르면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경제적 자원인 가족자원이 높고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은 감소했고, 가족자

2)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통계청, 2015)

원이 높고 역할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감소하였다. 즉 노인이 가족관계 내에서 원만한 관계, 고유의 기능 및 적절한 자원을 확보할 때 정신적으로 건강할 가능성이 크다. 농촌노인의 가족지지, 우울과 삶의 질을 연구한 장소영(2011)은 가족지지와 우울 간에 유의미한 역상관계가 있음을 나타냈고, 윤현숙과 유희정(2006)은 성공적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와의 접촉을 제시했다.

한편 국내 선행연구에서 노년층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척도로 신선인(2001)의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the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이하 KGHQ)가 활용되었다(김수봉·심옥수, 2013; 허준수, 2011). KGHQ는 불안, 신체화, 우울, 편집, 정신증, 예민성으로 나뉘며 하위요인 문항이 소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신선인, 2001). 노화 현상으로 인하여 노인의 우울 증상은 젊은 성인의 우울 증상과 다르게 측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를 개발한 연구사례도 존재한다(기백석, 1996).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년층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승하고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부모·자녀 간의 관계 역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은 부모·자녀 관계가 최근 상호교류적인 성격으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는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였으나 이제는 노인이 독립적 삶을 영위하며 자녀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만족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자녀에게 도움을 줄만한 노년층의 독립적인 삶은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실제로 최혜경 외(2005)의 연구에서도 상 수준의 경제수준을 보유한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통하여 생활만족도를 느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노인 스스로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맺는다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터하여 새롭게 변화한 부모·자녀 관계가 노년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인의 자기주도학습 성향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 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노년층의 부모·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노년층의 부모·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주도학습 성향의 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노인복지관, 지역주민자치센터, 지역 평생교육센터, 문화회관, 도서관 및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75세 이하의 남녀 고령자를 대상으로 2007년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은 <표1>과 같다.

응답자의 구성을 각 배경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약 40%, 여성은 약 60%였으며 연령은 60대와 70대가 거의 50%씩 차지하여 각각 절반의 비율을 나타냈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배우자가 있었으며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0%였고, 직업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응답자 중 6.3%에 불과했다. 교육수준의 경우 7명의 무응답자를 제외한 993명의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문해와 한글해독 수준까지의 교육수준을 보인 응답자의 비율과 대졸자의 비율이 각각 15.0%, 12.1%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초졸자, 고졸자, 중졸자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 50.9%가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34.5%가 그 다음을 이었고, 가장 적은 14.3%가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여 보통, 어려운 편, 여유가 있는 편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1> 응답자 속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390	39.0	연령	60대	480	48.0
	여	610	61.0		70대	520	52.0
배우자 유무	유	618	61.8	직업 유무	유	63	6.3
	무	382	38.2		무	937	93.7
교육 수준	비문해	21	2.1	경제 상태	매우 어려움	65	6.5
	한글해독	129	12.9		조금 어려움	280	28.0
	초등학교졸업	300	30.0		보통	509	50.9
	중학교졸업	196	19.6		여유 있음	140	14.0
	고등학교졸업	226	22.6		매우 여유 있음	3	0.3
	대학교졸업	121	12.1				

2. 측정 방법

본 연구는 60-70대 노년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통계학적 배경 변인과 부모·자녀관계 및 자기주도학습 성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기술통계, *F*검정, Pearson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과 Hayes(2012)가 제시한 SPSS Macro 방법을 통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동안 매개효과 분석에 활용되어 온 Baron & Kenny(1986)의 방법은 측정오차를 반영하지 못하며 정교한 연구모형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reacher and Hayes, 2004; 2008). 해당 방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통하여, 회귀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매개효과가 포함된 간접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단순 매개효과 외에도 다수의 매개효과나 조절효과 등이 포함된 복잡한 모형의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자기주도학습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SPSS 22.0 과 AMOS 18.0이 활용되었다.

가. 응답자 속성 측정

노년층 응답자의 개별 응답자 속성을 묻는 측정도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2>와 같다. 노년층의 응답 데이터에 기초하여 응답자 속성에 따라 범주화하기 위하여 성별과 연령대, 배우자 유무 및 직업 유무와 같이 이분적으로 나뉘는 응답자의 속성은 각각 1과 2로 자료를 입력하여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은 각각 1-5점, 1-6점의 형태로 자료를 입력하여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2> 인구통계학적 배경 변수 측정 문항

변수	문항
성별	귀하의 성별은?
연령대	귀하의 연세는?
배우자 유무	귀하의 배우자는?
직업 유무	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 수준	귀하의 현재 경제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어렵다 2) 조금 어려운 편이다 3) 보통이다 4) 여유가 있는 편이다 5) 매우 여유가 있다
교육 수준	귀하의 교육정도는? 1) 한글해독 2) 비문해 3) 초등학교졸업 4) 중학교졸업 5) 고등학교졸업 6) 대학교졸업

나. 자기주도학습 성향 측정

본 연구는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현숙 외(2004)가 생애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타당화한 검사 도구 중 자기주도학습 구인을 측정하는 문항을 일부 활용하였다. 유현숙 외(2004)가 개발한 생애능력 측정 검사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학습 계획(10문항), 학습 실행(20문항), 학습 평가(10문항)의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의 응답자인 노년층의 응답 집중 시간, 기타 조사 문항 할애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각 하위 영역을 이루는 문항 중 양호도가 우수한 3문항을 선택하여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 성향을 측정하는 간략화된 검사 도구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개별 문항은 <표3>에 제시되어 있으며 음영 처리된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표3> 자기주도학습 성향 측정 도구

하위 영역	문항
학습 계획	1) 내가 잘 모르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배우는 것을 피한다.
	2)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배운다.
	3)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할까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
학습 실행	4)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 질문한다.
	5)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꼭 메모한다.
	6) 무슨 일이든 내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한다.
학습 평가	7) 경험상 노력보다는 운이 일의 결과를 좌우했기 때문에 운이 좋기만을 바란다.
	8) 내가 한일의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다.
	9) 이미 끝난 일이라도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자기주도학습 성향 측정 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706이었으며 개별 문항에 대한 통계치는 <표4>와 같다. 검사 총점과 개별 문항 점수 간의 상관의 크기가 .30 이하일 경우 변별도가 양호하지 못한 문항으로 판별됨에 따라(Field, 2009; Kline, 1998; 김은주, 2013, 재인용), 실제로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가 .728— .771로 높아지는 문항1과 문항7을 제외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두 문항은 모두 역채점된 문항으로, 부정형 문항을 검사 도구에 포함할 시 응답자의 주의 집중을 분산시키지 않고 일관된 응답을 끌어낼 수 있도록 주의 깊게 활용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표4> 자기주도학습 측정 도구 신뢰도 검정 결과

하위 영역	문항	평균	표준편차	문항-총점간 상관 관계	문항 제거 시 신뢰도 계수
학습 계획	문항1	2.34	0.94	.083	.728
	문항2	3.31	0.96	.673	.657
	문항3	3.28	0.93	.706	.650
학습 실행	문항4	3.45	0.95	.687	.665
	문항5	3.31	1.06	.670	.664
	문항6	3.47	0.92	.697	.649
학습 평가	문항7	2.49	0.96	-.170	.771
	문항8	3.54	0.89	.655	.657
	문항9	3.45	0.91	.694	.654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두 문항을 제외한 7개의 문항이 자기주도학습 성향이라는 구인에 대하여 일차원성을 만족시키는지 구인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에 적합한 데이터인지 여부를 검정하기 위하여 KMO 측도와 Bartlett 구형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강태훈, 조혜영, 오민아, 2013) KMO 값은 .873으로 도출되어 .8이상일 경우 요인분석에 양호하다는 기준을 충족하였고(Kaiser, 1974) Bartlett 구형성 검정은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성향을 측정할 데이터의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순목(2010)이 제시한 스크리 도표, 누적분산 퍼센트 기준, 해석 가능성을 활용하였다. 먼저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스크리 도표를 살펴본 결과 2번째 요인부터 고유값이 1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설명된 총분산의 경우 제1요인이 46.7%를 설명하였으나 제2요인과 제3요인의 설명량은 10% 내외에 불과하였다. 7개의 문항은 각각 학습 계획, 학습 실행, 학습 평가의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모두 자기주도학습 성향과 관련한 학습 특성을 공통으로 측정하는 문항이며, 선행연구(유현숙 외, 2004)에서 타당화된 선별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된 검사 도구임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해석가능성 측면에서 요인의 수를 1개로 확정하였다.

일곱 개의 문항이 자기주도학습 성향의 요인을 적절히 부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일반화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5>와 같다. 일반적으로 .3 이상의 요인 부하량이 해당 요인을 이루는 하위 문항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임에 비추어(Kline, 1994) 일곱 개의 문항이 자기주도학습 성향이라는 요인을 적절히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CFI, TLI 및 RMSEA 지표를 살펴보았다. CFI, TLI가 0인 경우, 해당 모형이 데이터에 전혀 적합하지 않고 1인 경

우 완전히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며 0.9이상인 경우 데이터에 적합한 모형으로 해석한다. RMSEA는 0.05 이하인 경우 보통 적합하다고 해석한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자기주도학습 성향 측정 도구의 적합도는 CFI는 0.972, TLI는 0.959이었고 RMSEA는 0.058이었다. RMSEA가 0.05 이하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해당 지수의 판명 기준은 0.06(Hu & Bentler, 1999) 혹은 0.07(Steiger, 2007)이 적절하다는 선행연구와 다른 적합도 지수에 대한 적합도 판명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의하여 해당 측정 도구의 모형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5> 자기주도학습 성향 측정 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비표준화 요인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요인계수
2) 배우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배운다.	1.000***		0.597
3)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할까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	1.063***	0.069	0.653
4)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잘 질문한다.	1.027***	0.069	0.616
5)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꼭 메모한다.	1.055***	0.075	0.569
6) 무슨 일이든 내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한다.	1.038***	0.068	0.642
8) 내가 한일의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이다.	0.923***	0.064	0.591
9) 이미 끝난 일이라도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1.022***	0.067	0.637

* $p < .05$, ** $p < .01$, *** $p < .001$

다. 부모·자녀관계 측정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부모로서의 자신에 대한 만족도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해당 문항은 각각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두 문항 간의 상관계수가 .646으로 도출되어, 두 문항이 부모·자녀관계라는 일차원적 속성을 비교적 적절히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정신건강 측정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도구는 신선인(2001)의 한국판 일반정신건강 척도(KGHQ)를 활용한 정신건강 검사지가 활용되었다. 불안, 신체화, 우울, 편집, 정신증, 예민성의 요인으로 나누어 질 수 있고 이후 30문항, 28문항, 20문항 등으로 축약되어 사용되었으며, 30문항형이 가장 자

주 사용되었다(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연구지원팀·Praxis, 2003). 신선인(2001)은 KGHQ 개발과정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일반인 및 정신질환자 825명의 응답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30문항 형에 대하여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alpha를 산출한 결과, 일반인은 .91, 정신질환자집단은 .90으로 도출되어 높은 내적합치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 역시 30문항 형이었으며 일부 부정형 문항을 역채점한 후 30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노년층 응답자의 개별 정신건강 수준으로 상정하였다.

III. 결과

1. 기술통계: 일반적 현황

한국 60-70대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 성향과 부모·자녀관계 및 정신건강 변인의 전반적인 수준 및 인구통계학적 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 여부를 파악하고자 <표6>의 기술통계치와 차이 검정 값을 제시하였다.

자기주도학습 성향과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1,000명의 응답자가 모두 응답하였으며 부모·자녀관계의 경우 972명만이 응답하였다. 자기주도학습 성향과 부모·자녀관계는 5점 척도, 정신건강은 4점 척도인 가운데 평균점수가 아래 <표6>에 제시된 바와 같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경제수준이 높을 경우, 세 변인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는데 다만 정신건강의 경우 차이의 절대값이 0.03에 불과하였으나 표본수가 1,000명인 것에 기인하여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론되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에는 자기주도학습 성향과 정신건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6> 인구통계학적 배경 변수에 따른 자기주도학습 성향, 부모·자녀관계, 정신건강 차이 검정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전 체	자기주도학습 성향	1,000	3.40	0.65	-
	부모·자녀관계	972	3.65	0.71	
	정신건강	1,000	2.62	0.17	
성 별	자기주도학습 성향	남	390	3.43	1.285
		여	610	3.38	
	부모·자녀관계	남	599	3.61	0.77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 성향이 부모·자녀관계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연령	정신건강	여	383	3.68	0.67
		남	390	2.61	0.16
	자기주도학습 성향	60대	480	3.45	0.62
		70대	520	3.36	0.66
	부모·자녀관계	60대	470	3.65	0.70
		70대	512	3.65	0.73
배우자	정신건강	60대	480	2.64	0.16
		70대	520	2.60	0.17
	자기주도학습 성향	유	618	3.45	0.64
		무	382	3.33	0.65
	부모·자녀관계	유	367	3.71	0.70
		무	615	3.55	0.72
직업	정신건강	유	618	2.63	0.17
		무	382	2.60	0.17
	자기주도학습 성향	유	63	3.48	0.61
		무	937	3.40	0.65
	부모·자녀관계	유	920	3.65	0.76
		무	62	3.65	0.71
경제수준	정신건강	유	63	2.64	0.19
		무	937	2.62	0.17
	자기주도학습 성향	상	143	3.63	0.69
		중	509	3.53	0.60
		하	345	3.12	0.59
	부모·자녀관계	상	143	3.93	0.71
중		507	3.68	0.66	
하		329	3.49	0.76	
교육수준	정신건강	상	143	2.66	0.15
		중	509	2.64	0.16
		하	345	2.57	0.18
	자기주도학습 성향	초졸 이하	450	3.19	0.62
		중졸	196	3.37	0.63
		고졸	226	3.64	0.56
대졸		121	3.78	0.59	
부모·자녀관계	초졸 이하	438	3.65	0.70	
	중졸	193	3.66	0.70	
	고졸	224	3.68	0.75	
	대졸	120	3.59	0.73	
정신건강	초졸 이하	450	2.59	0.18	
	중졸	196	2.63	0.14	
	고졸	226	2.64	0.17	
	대졸	121	2.67	0.15	

* $p < .05$, ** $p < .01$, *** $p < .001$

2. 자기주도학습 성향과 부모·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년층의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과 자기주도학습 성향, 부모·자녀관계 및 정신건강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7>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배우자 유무, 경제 수준은 자기주도학습 성향, 부모·자녀관계 및 정신건강과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고, 교육 수준은 자기주도학습 성향과 정신건강에 대하여 유의미한 수준으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경제수준과 학업수준이 낮을수록 유의미한 정도로 우울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이영경·정명희(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자기주도학습 성향 및 부모·자녀관계와 정신건강, 삼자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자기주도학습 성향과 부모·자녀관계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다.

<표7> 인구통계학적 배경변인, 자기주도학습 성향, 부모·자녀관계 및 정신건강 간의 상관계수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직업 유무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자기주도 학습 성향	부모·자녀 관계	정신건강
성별	1	.136**	.375***	.063*	.069*	.422***	.036	-.043	-.032
연령		1	-.092**	-.122***	-.002	-.047	-.076*	-.001	-.098**
배우자 유무			1	.094**	.228***	.278***	.088**	.107**	.086**
직업 유무				1	-.048	.073	.029	-.002	.031
경제 수준					1	.286***	.305***	.198***	.212***
교육 수준						1	.347***	-.010	.172***
자기주도학습 성향							1	.070*	.324***
부모·자녀관계								1	.102***
정신건강									1

* $p < .05$, ** $p < .01$, *** $p < .001$

노년층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결과에 터하여, 정신건강과 .1 이상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경제수준, 교육수준과 자기주도학습 성향 및 부모·자녀관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정신건강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해당 자료가 회귀모형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과 잔차 간의 독립성을 진단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수의 공차와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도출한 결과, 1.046 ~ 1.226의 VIF가 .823 ~ .956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성태제, 2010, pp. 266). 잔차

간의 상호독립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Durbin-Waston 통계치를 살펴본 결과 1.811로 나타났고, 2에 가까울수록 독립적인 관계로 볼 수 있음에 따라 잔차의 상호 독립성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성태제, 2010, pp. 266).

경제 및 교육수준과 자기주도학습 성향 및 부모·자녀관계가 노년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회귀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표8>과 같았다. 본 회귀모형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노년층 정신건강에 대하여 약 12.1%의 설명력을 보였다. 유형 자산인 경제수준보다 자기주도학습 성향과 부모·자녀관계의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다.

<표8> 경제수준, 교육수준, 자기주도학습 성향 및 부모·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수	B	β
경제수준	0.018	0.084*
교육수준	0.007	0.064
자기주도학습 성향	0.071	0.268***
부모·자녀관계	0.015	0.063*
F		32.927***
R^2		.121

* $p<.05$, ** $p<.01$, *** $p<.001$

3. 부모·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성향의 매개효과

한국 60-70대 노년층의 부모·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주도학습 성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2012)가 제시한 SPSS Macro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그림1>에 해당하는 매개모형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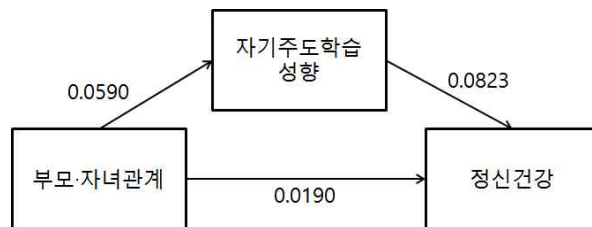
<표 9> 부모·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주도학습 성향의 매개효과

독립변수	경로 계수		간접 효과		
	종속변수		추정치	Sobel Z	Bootstrap 95% C.I.
	정신건강(H)	자기주도학습 성향(S)			
부모·자녀관계(R)	0.0190**(0.0072)	0.0590*(0.0286)			
자기주도학습 성향 (S)	0.0823***(0.0080)				
R→S→H			0.0049	2.0137*	0.0004, 0.0098

* $p < .05$, ** $p < .01$, *** $p < .001$

분석 결과, 부모·자녀관계가 노년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주도학습 성향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었다. 추정된 경로 계수를 바탕으로 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부모·자녀관계가 노년층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주도학습 성향이 매개하여 미치는 영향(0.0049)과 자기주도학습 성향을 통제하고 부모·자녀관계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0.0190)으로 나뉘며 이들 효과를 모두 합친 총효과는 0.0239로 나타났다.

매개모형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수행한 결과 매개효과는 유의하였고($Z=2.0137$, $p < .01$) 부트스트랩에 의한 신뢰구간 추정치도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그림1] 연구 모형

IV. 결론

본 연구는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 성향과 부모·자녀관계 및 정신건강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60-70대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은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자기주도학습과 정신건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 나머지 변수인, 경제수준, 교육수준 및 부모·자녀관계를 독립변수로 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주도학습은 다른 독립변수들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기존에 환경으로 인하여 고정된 변수로서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변화나 개발이 가능한 변수로서 자기주도학습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평생학습 관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노년층의 건강한 노화과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복지제도보다 평생학습 정책에서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는 전략으로 고령화 사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이는 신용주(2013)가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자기 관리 능력의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을 주장한 것과 유사한 맥락의 연구 결과이다.

둘째, 한국의 60-70대 노년층의 부모·자녀관계는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노년기 부모와 성인 자녀 간 관계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권중돈과 조주연(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년층의 성공적인 노화에 부모·자녀관계가 실제 생활 및 사회 적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들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발견한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셋째, 한국의 60-70대 노년층의 부모·자녀관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의 자기주도학습 성향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김보은 외(2016)의 연구 결과에서 적절히 확보된 노년층의 자아존중감이 가정과 일의 양립이라는 환경적 어려움이 우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동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노년층의 건강한 정체성 확보가 이루어질 때 정신건강이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 독립세대 증가, 부모 부양에 관한 전통적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부모·자녀관계나 가치관의 정립이 새롭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년층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컨대, 노년층 대상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제작 시, 사회적 관계 등과 같은 실생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가족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과 능동적인 시민참여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 성향을 길러주는 학습방법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평생교육이 사회적 진보를 가져온다는 OECD ESP(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연구의 관점(김태준 등, 2011, 2012)에서 변화하는 새로운 가족관계와 노년층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기주도학습 성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 및 환경이 구성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태훈·조혜영·오민아(2013). 교육 연구에서의 탐색적 요인분석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방법연구** 25(3), 521-541.
- 권중돈(2009).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2), 61-76.
- 기백석(1996).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5(2), 298-307.
- 기영화(2005).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노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요인 정립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8(3), 89-109.
- 김수봉·심옥수(2013). 도시지역 노인의 정신건강 영향요인 분석.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9(-), 95-114.
- 김보은·조영일·유지영·최은실·김혜영(2016). 성인기와 노년기별 기혼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36(1), 473-496.
- 김은주(2013). 노인의 성공적 노화 측정도구에 대한 요인 구성타당도 평가. **대한간호학회지** 43(4), 568-578.
- 김종두(2015). 자기건강관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노인집단 만족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 회논문지** 9(1), 131-141.
- 김창환·홍지영·최상덕·김미숙(2007). **2007 평생학습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준(2006). 성인학습과 사회적 자본 프로파일: 시민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평생교육학연구** 12(4), 73-94.
- 김태준(2010). 성인의 사회적 자본 유형별 추이 분석과 교육적 함의. **평생교육학연구** 16(2), 47-67.
- 김태준·홍령란·김선자·박응희·정혜령·한정란(2007).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년교육 장기 발전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문아람(2007). 노년기 가족관계특성이 노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박미숙(2010). 노인이 인지하는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배영주(2003). 성인의 자기주도학습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변종임·김인숙(2011). 평생학습 참여 효과 분석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7(4), 29-53.

-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연구지원팀·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Praxis(2003). **실천
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 척도집**. 서울: 사회복지 전문출판 나눔의집.
- 성태제(2010).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 신선인(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한국사회복지학** 46(9),
210-235.
- 신영희·이혜정(2009). 일 도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29(4),
1327-1340.
- 신용주(2013). 노인의 자기주도학습 가능성과 노인복지에의 시사점. **Andragogy Today**
16(4), 61-84.
- 신정례·곽중형(2014). 평생교육 프로그램 만족이 성공적 노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응력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 중심으로-. **사회복지경영연구** 1(1), 131-150.
- 유현숙·김태준·송선영·이석대(2004).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관리 방
안 연구(III)**.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현숙·유희정(2006). 가족관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5-31.
- 이순묵(201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영경·정명희(2013). 노인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가족탄력성을 중심으
로. **노인복지연구** 61(3), 111-134.
- 장소영(2011). 일 지역 농촌노인의 가족지지, 우울, 삶의 질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 정미경(2009). 지역사회 참여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중년기 여성의 생의 의미와 사회심리적 안
녕감에 미치는 효과. **평생교육학연구** 15(1), 127-154.
- 최돈민(2013). 평생학습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제비교 분석. **비교교육연구** 23(6),
211-236.
- 최혜경·백지은·서선영(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3(2), 1-10.
- 통계청(2009). **2009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67505
에서 2016. 02. 20 인출.
- 통계청(2015). **2015 고령자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48565
에서 2016. 02. 20 인출.

- 통계청(2015). **통계용어 지표**. http://kostat.go.kr/file_total/2015_korki_tot.pdf 에서 2015. 07. 25. 인출.
- 허준수(2011). 노인들의 고독감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과 비이용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74-104.
- KOSIS(2014) KOSIS 100대지표,
http://kosis.kr/nsportalStats/nsportalStats_0102Body.jsp?menuId=1&NUM=13에서 2015. 07. 25
인출
- Baron, R. B.,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rockett, R.(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adults. *Adult Education Quarterly*, 35(4), 210-219.
- Brockett & Hiemstra(1991). Brockett, R. G. and Hiemstra, R. (1991)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elf-direction in adult learning' in *Self-Direction in Adult Learning: Perspectives 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Reproduced in the informal education archives.* Retrieved March 11, 2016. from
http://www.infed.org/archives/e-texts/hiemstra_self_direction.htm
- Candy, P. C.(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Cote, J. E. & Schwartz, S. J.(2002). Comparing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approaches to identity: identity status, identity capital, and the individualization process. *Journal of Adolescence*, 25(6), 571-586.
- Field, A.(2009).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SPSS (3r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 Fisher, J. C. (1988). Impact of anomia and life satisfaction on older adults learners. *Educational Gerontology*, 14(2), 137-146.
- Harry S. Dent. 권성희 역(2014). **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 서울: 청림출판.
- Hayes, A. F. (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White paper]*. Retrieved March 2, 2016, from <http://www.afhayes.com/public/process2012.pdf>
- Hiemstra, R.(1975). *The older adult and learning*. Ames, IA: Adult and extension education, Iowa State Universit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117 371).

- Hu, L.T. & Bentler, P.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Jarvis, P.(2001). *Learning in later life. An introduction for educators & carers*. London: Kogan Page.
- Kaiser, H. F.(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NY: Guilford Press.
- Knowles, M. S.(1980).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2nd ed)*. New York: Cambridge books.
- OECD(2010).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aris, France: OECD.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and Computers*, 36(4), 717-731.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a).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Roberson, Jr., D. N. (2003). *How older rural adults utilize self-directed learning in later life adjustment*, Retrieved March 10, 2016, from <http://files.eric.ed.gov/fulltext/ED494519.pdf>
- Roberson, Jr., D. N.(2005). Leisure and learning: An investigation of older adults and self-directed learning. *Leisure/ Loisir*, 29(2), 203-237.
- Steiger, J.H.(2007). Understanding the limitations of global fit assessment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2(5), 893-898.

- 논문 접수 2015. 8. 5 / 수정본 접수 2016. 4. 30 / 게재 승인 6. 17
- 김태준: 한양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 취득.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으로 발달 및 학습심리, 노인교육, 시민교육, 평생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오민야: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졸업.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측정 및 평가로 석사학위 취득.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수학 중이며, 문항반응이론, 양적 평가, 정의적 특성 검사 및 평생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Abstract

**The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Disposition o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Group**

Kim, Tae-Jun(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h, Minah(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disposition of the elderly group and how it affects their relationship with children and their mental health, considering a drastic social aging which has brought a reform in family relationships and bonding.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a survey data targeting 1,000 people in their 60s and 70s as collected by Kim et al(2007). The result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e self-directed learning disposition of the elderly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positively affecting their mental health. In other words, self-directed learning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mental health. This finding implies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cut social costs in this aging society by improving a self-directed learning disposition of elderly group and aging well.

* Key words: aged society, self-directed learning disposition,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mental health, well-aging